

10. 유혈극의 승리자 하쓰세/ 백제 동성왕 (463-479)

10. 大長谷若建命 大泊瀨 (雄略)

宋書 卷九十七 列傳 夷蠻 太祖 大明 六年 詔曰 倭王世子興 奕世載忠 作藩海外 稟化寧境 恭修貢職 新嗣邊業 宜授爵號 可安東將軍 倭國王 興死弟武立 自稱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雄略 卽位前紀 ... 以平群臣眞鳥爲大臣 以大伴連室屋物部連目爲大連 上461

大長谷若建命 坐長谷朝倉宮 治天下也 天皇 娶大日下王之妹 若日下部王 无子 又娶都夫良意富美之女 韓比賣 生御子 白髮命 次妹 ... 故爲白髮太子之御名代 定白髮部 又定長谷部舍人 又定河瀨舍人也 古 306

雄略 二年 天皇以心爲師 誤殺人衆 天下誹謗言 大惡天皇也 唯所愛寵 史部身狹村主青 檜隈民使博德等 上465

安康 卽位前紀 當是時 大泊瀨皇子 欲聘瑞齒別天皇之女等 女名不見諸記 於是 皇女等皆對曰 君王恒暴強也 忽忿起 則朝見者夕被殺 夕見者朝被殺 ... 遂遁以不聽矣 上453

(1) “극악 무도” 한 하쓰세

송서와 양서 모두가, 왜왕 고오(興)가 죽자 동생 부(武)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학자들은, 하쓰세가 바로 송서에서 말하는 왜왕 부라고 생각한다.

송서는, 462년 이후 어느 해인가, 왜왕 고오가 죽자 아우 부가 왕위에 올라, “자칭” 사지절 도독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加羅) 진한 모한 7국 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 이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송서에 의하면, 462년에는 “고오” 라고 부르는 왜왕이 아직 생존하고 있었다. 일본서기는 하쓰세(武)의 즉위 년도를 457년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나는 송서의 기록을 근거로, 부의 즉위 년도를 463년으로 추정한다.

즉, 462년 말에 6대왕 아나호가 살해당하고 나자, 4대왕 미즈하의 막내아들이며 [가정4.4] 아나호의 친동생인 하쓰세가 463년에 7대 왕이 되었다고 추정을 한다. 하쓰세의 시호는 유랴쿠(雄略)이다.

하쓰세 왕은 하쓰세라는 명칭을 가진 곳의 아사쿠라 궁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다스렸다. (헤구리 씨족의 오미) 마토리를 대신으로 삼고, (오호토모 씨족의 무라지) 무로야 와 (모노노베 씨족의 무라지) 메(目)를 대련으로 삼았다.

하쓰세는, 2대왕 사자키와 카미나가 사이에 태어난 (자신의 고모 벌인) 외동딸을 왕후로 삼았다. 이 나이 많은 왕후가 아이를 낳았을 리가 없다. 고사기는 그녀 소생의 자식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 하쓰세는 쯔부라 대신의 딸 카라히메(韓媛)를 왕비로 삼아 시라가 왕자를 낳으니, 그가 후에 [8대왕] 세이네이 가 된다. 시라가의 미나시로(御名代)로 시라가 베를 정했다. 카라히메가 낳은 공주는 이세의

대 신사를 모셨다.

키비의 카미쓰미치 씨족의 (쿠보야) 오미의 딸 와카히메를 또 왕비로 삼았는데, 그녀는 이하키 왕자와 호시카하 왕자를 낳았다. 하쓰세 베의 토네리(舍人)를 정했다.

하쓰세는 힘이 넘치는 장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제멋대로 수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극악무도한 임금이라고 욕을 했다. 그가 총애했던 사람이란 후미히토(史部)의 한 두 사람뿐 이었다고 한다.

일본서기의 안코오(6대왕 아나호) 즉위전기를 보면, 일찍이 하쓰세 왕자가 “미즈하의 딸 등”을 왕비로 맞아들여 하자, 그녀들이 “왕자는 항상 거칠기 짝이 없고, 갑자기 분노하면 아침에 본 사람이 저녁에 죽어 있고, 저녁에 본 사람이 아침에 죽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굴이 빼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말썬이나 성품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왕자의 사랑을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두 달아나 버렸다고 한다.

일본서기는 “미즈하의 딸 등”이라고 기록을 하면서도, 그녀들의 이름은 어느 책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특별히 주석을 달았다.

나는 아나호와 하쓰세를 미즈하의 아들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가정4.4]. 일본서기도, 여기서 거론되는 공주가 정말 미즈하의 딸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딸의 이름은 어느 책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석을 달았다. 미즈하의 딸이 아닌 다른 공주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니 오미 후카메 의 딸) 오미나는 분시 궁중에서 시중을 드는 우네메 이었다. 그녀는 언제인가 하루 밤 왕을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딸을 낳게 되었다. 하쓰세 왕은 과연 그 여자 아이가 자신의 딸인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그 여아를 못 본체하고 내버려두었다. 후에 그 아이가 궁궐의 대전 안과 밖을 걸어 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 메 대련이 왕에게 말 했다: “어쩌면 저 여아의 걷는 모습이 임금님과 것처럼 꼭 닮았습니까?” 하쓰세는 그 여아를 보는 사람마다

雄略 元年 立草香幡檢姬皇女爲皇后 是月 立三妃 元妃葛城圓大臣女曰韓媛 生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與稚足姬皇女 是皇女侍伊勢大神祠 次有吉備上道臣女稚媛 生二男 長曰磐城皇子 少曰星川稚宮皇子 次有 春日和珥臣深目女 曰童女君 生春日大娘皇女 童女君者本是采女 天皇一夜而脈 遂生女子 天皇疑不養 及女子行步 天皇御大殿 物部目大連侍焉 女子過庭 目大連顧謂群臣曰... 容儀能似天皇 天皇曰 見此者咸言 如卿所導... 天皇命大連 以女子爲皇女 以母爲妃 上461-463

雄略 六年 吳國遣使貢獻也 上473

幸行河內 爾登山上望國內者 有上堅魚作舍屋之家... 志幾之大縣主家... 似天皇之御舍而造 即遣人令燒其家之時 其大縣主懼畏 ... 布紮白犬著鈴而... 故 令止其著火 古306-308

雄略 六年 天皇欲使后妃親桑 以勸蠶事 爰命螺贏 螺贏 人名 此云須我瘞 聚國內蠶 上473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대련에게 명해 그 여아를 왕녀로 만들고 오미나를 왕비로 만들도록 조치했다.

[463년] 하쓰세 왕이 카후치를 순행하면서 동산에 올라보니, 시키라는 현의 현주가 왕궁과 똑같은 모양으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발견했다. 즉, 가쓰오(생선 가다랑어)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통나무 지붕 장식을 해 놓은 것이다. 꽤 씩씩하게 생각하여 즉시 불태워 버리려 했으나, 그 현주가 방울을 매단 백색의 개를 헌상하기에, 용서를 해 주었다.

일개 현주가 왕궁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 기록은, 당시 왕궁의 규모가 그리 웅장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하긴 고정된 수도도 없이,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수도를 바꾸었으니, 왕궁을 거창하게 지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왕은 왕후를 비롯해서 궁궐내의 모든 여인들이 솔선하여 손수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기를 것을 원했다. 그래서 하쓰세는 전국으로부터 누에를 모아오도록 명령했다.

삼국사기를 본다. 463년, 왜인이 삼랑성에 침입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갔다. 자비왕이 두 명의 장수들에게 군사를 주어 돌아가는 길목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습격을 하게 하니, 왜인들이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왕은 왜인들이 빈번하게 강역을 침입하자, 해안에 두 개의 성곽을 축조케 했다.

[463년] 하쓰세는 요시노 궁으로 행차를 해, 그 인근 지역에서 수렵을 즐겼다. 하쓰세는 사냥을 상당히 즐겼던 것 같다. 그 날도 여러 개의 산을 오르고, 넓은 들을 달리며 수많은 새와 짐승들을 잡았다.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 쉬면서 군신들에게, “사냥의 즐거움은 조리사로 하여금 육회를 만들게 하는데 있다. 누가 한번 스스로 회를 떠보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군신들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쓰세는 크게 노해 마부를 베어 죽였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왕후는, 주방에서 육회를 잘 만드는 자신의 조리인 3인을 왕에게 바치면서, 이 세 명의 사람을 가지고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

三國史記 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慈悲麻立干 六年 春二月 倭人侵歙
良城 不克而去 王命伐智德智 領兵
伏候於路 要擊大敗之 王以倭人虜
侵疆場 緣邊築二城 三上64

雄略 二年...命虞人縱獵...獮什七八
每獵大獲 鳥獸將盡 遂旋憩乎林
泉... 問群臣曰 獵場之樂 使膳夫割
鮮 何與自割 群臣忽莫能對 於是
天皇大怒 拔刀斬御者大津馬飼 是
日 車駕至自吉野宮 國內居民 咸皆
振怖 由是... 皇太后知斯詔情 奉慰
天皇曰 群臣不悟陛下因遊獵場 置
肉人部... 以我爲初 膳臣長野 能作
肉膾 願以此貢... 皇太后觀天皇
悅...曰 我之廚人... 以此二人 請將
加貢 爲肉人部 自茲以後 大倭國造
吾子籠宿禰 貢狹穗子島別 爲肉人
部 臣連伴造國造又隨續貢 是月 置
史戶 河上舍人部 上463-465

는 시시히토(肉人) 베를 만들도록 했다. 그 후, 오토야마토(大倭) 국조 아고코가 사람 하나를 보내 시시히토 베에 추가시켰다. 그러자 나라안의 오미, 무라지, 반조, 국조 등 역시 사람들을 보내 추가시켰다. 이 기록을 보면, (왕실 직속의) 베라는 것은 단 세 명의 사람을 가지고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사실의 기록이다.

헝가리뿐만 아니라, 저어머니 와 프랑스에서도, 조리를 안한 생 소고기에 향신 채소를 가미한 타아타르 스테이크를 먹는다. 한국에서는 주로 소의 대접살, 간, 콩팥, 허파 등을 양념을 해서 날로 먹는다. 현대 일본 사람들도 말고기 육회를 잘 먹는다. 오늘날 몽골에서는 고기를 주로 물에 끓여서 먹지만, 예전에는 몽골인도 육회를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해에 후미히토(史戶) 베와 카하카미의 토네리(舍人) 베를 설치했다.

463년 가을 8월, 키비 출신의 유게베(弓削部) 토네리가 급한 일로 귀가했을 때, 키비의 (시모쓰미찌 씨족의 오미) 사키츠야 가 그 토네리를 잡아놓고 왕을 모욕하는 무례한 짓을 했다. 하쓰세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모노노베 씨족의 병사 30인을 보내 사키츠야 일족 70명을 모조리 주살해 버렸다.

나는 하쓰세가 463년에 왕위에 올랐다고 추정을 한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유략쿠(하쓰세) 즉위 원년 조부터 7년 조까지(일본서기의 457-463년 기간)의 기록 내용 전체를 내가 추정하는 유략쿠 즉위 초년 도(즉 463년) 기록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나는 (유략쿠 즉위 원년에 포함된다고 간주하는) 일본서기 유략쿠 7년 가을 8월 조 기록부터, 더 이상 연도 조정을 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463년(일본서기의 유략쿠 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120년의 괴리”가 해소된 것이다.

(2) 이마끼 아야

(카미쓰미찌 씨족의 오미) 타사의 처는 카즈라키 소

雄略 七年 官者吉備弓削部虚空 取急歸家 吉備下道臣前津屋 留使虚空...復以小雄鷄 呼爲天皇鷄...天皇聞是語 遣物部兵士三十人 誅殺前津屋并族七十人 上473-475

雄略 七年 吉備上道臣田狹...曰 天下麗人 莫若吾婦...天皇...使欲自求 稚媛爲女御 拜田狹 爲任那國司 俄而 天皇幸稚媛...別本云田狹臣婦... 葛城襲津彦子 玉田宿禰之女也 天皇聞體貌閑麗 殺夫自幸焉 田狹旣之任所 聞...入新羅 上475

雄略 七年 天皇詔田狹臣子弟君 ... 曰汝宜往罰新羅 於是 西漢才伎歡 因知利在側 乃進而奏曰 巧於奴者 多在韓國 可召而使...然則宜以歡 因知利 副弟君等 取道於百濟...集聚 百濟所貢今來才伎於大嶋中... 任那 國司田狹臣...密使人於百濟 戒弟君 曰...跨據百濟 勿使通於日本 吾者 據有任那 亦勿通於日本 弟君之 婦...忠諭白日... 惡斯某叛 盜殺其 夫...百濟所獻手末才伎... 遂即安置 於倭國吾礪廣津邑 而病死者衆 由 是 天皇詔大伴大連室屋 命東漢直 掬 以新漢陶部高貴 鞍部堅貴 書部 因斯羅我 錦部定安那錦 譯語卯安 那等 遷居于上桃原 下桃原 眞神原 三所 或本云 吉備臣弟君 還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宏人部 上477

雄略 七年 新羅國... 而大懼中國之 心 脩好於高麗 由是 高麗王遣精兵 一百人守新羅... 新羅王乃知高麗僞 守...盡殺國內所有高麗人... 高麗王 即發軍兵...新羅王... 乃使人於任那 王曰... 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 任那王勸膳臣斑鳩 吉備臣小 梨 難波吉士赤日子 往救新羅... 大 破之 上479

츠비코의 손녀였다. 한데 타사는 온 세상에 자기 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다녔다. 하쓰세 왕은 그 소리를 엿듣고, 타사의 처를 빼앗으려고, 그를 미마나(任那) 국사로 임명해 보냈다. 그 후, 하쓰세 왕은 타사의 처를 취해 아들 둘을 낳았다.

미마나에서 왕이 자기 처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타사는, 신라로 가 버릴 생각을 했다. 그러자 하쓰세 왕은 타사의 아들 오토키미에게, 신라를 벌해주고 오라고 명령했다. 이때 마침 측근에 있던 카후치 아야(西漢) 씨족의 숙련 기술자 관인치리가 말 했다: “카라쿠니(韓國)에는 저보다 훨씬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 쓰시면 어떨겠습니까?” 하쓰세는 군신들에게 말 했다: “그러면 관인치리로 하여금 오토키미 등과 함께 출발하여, 백제 조정에 기술자들을 보내달라는 칙서를 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한국은 바로 백제를 의미 하는 것이다.

오토키미 일행이 백제에 도착했다. 그러자 타사는 백제에 도착한 자기아들 오토키미에게 밀사를 보내 말을 전했다: “너는 백제에서 야마토 와의 왕래를 차단하고, 나는 미마나에 근거를 두고 양국 간의 왕래를 차단하자.” 충성심이 강한 오토키미의 처는, 이 부자지간에 오가는 말을 엿듣고, 모반을 하려는 남편을 죽여서 물어버렸다.

당시 야마토의 특이한 관행은, 남편이 출전을 하거나 오토키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러 파견될 때, 부인들이 수발을 하며 따라 다닌다는 사실이다. 마치 몽골 유목민족의 출정 관행을 보는 것 같다. 아마 여행기간이 몇 달씩, 혹은 그 이상, 걸리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남편을 따라 외지에 나가는 여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단순히 밥 세끼 해 주고, 빨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했던 것 같다. 반역하려는 남편을 죽여서 파묻는 역할도 했으니 말이다.

관인치리는 백제로부터 숙련 기술자들을 구해왔다. 조정에서는 백제로부터 새로 도착한 이들 기술자 무리를 야마토의 히로키츠 마을에 정착시켰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많은 수가 병들어 죽었다. 이 때문에 왕은 (오호토모 씨족의) 무로야 대련에게, 야마토 아야 씨족의 아타히(東漢直) 쓰카를

시켜 이마끼 아야(新漢) 기술자들을, 즉 도자기 제작부의 고 귀, 말안장 부의 견귀, 그림 그리는 부의 인사라아, 비단을 짜는 부의 정안나, 통역(오사, 譯語)의 묘안나 등을, (아스카 땅의) 카미츠 모모하라, 시모츠 모모하라, 마카미하라 등 세 지역으로 옮겨 거주토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호무다 때에 아치 오미가 백제에서 인솔하고 온 17현 사람들을 아야(漢) 씨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쓰세 때에 백제에서 도래한 이 기술자들은, 후에 새로 건너왔다는 뜻으로, 이마끼 아야(新漢) 라고 불러 구별을 했다.

(3) 임나왕과 야마토 장수들

464년, 신라는 야마토 조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크게 불안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수립했다. 고구려왕은 우호의 표시로, 골라 뽑은 병사 100명을 신라에 보냈다. 그러나 신라는 새삼 고구려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급기야 신라 땅에 와있는 고구려 병사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장수왕은 군대를 동원해 신라를 공격했다.

신라왕은 임나왕(任那王)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임나왕은, 그곳(미마나)에 주둔하고 있던, (카시하데 씨족의 오미) 이카루가 등 야마토 장수들에게 신라를 구원하러 가 줄 것을 권했다. 마침내 이들은 신라를 도와 고구려군을 크게 격파했다.

임나 일본부설과 일본의 남한경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임나왕”이라는 존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서기는, 464년 봄에, 중국 남조(吳國)에 사신을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새로 도래한 이마끼 아야의 통역(오사, 譯語)이 곧바로 임무를 수행 했었을 것이다.

465년 2월, 카타후 라는 사람을, 우네메와 함께, 무나카타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파견했다. 한데 그 자는, 제단에 도착하자, 함께 간 궁녀를 범했다. 하쓰세 왕은 그 말을

雄略 八年 遣 ... 使於吳國 上477

雄略 九年 二月 遣凡河內直香賜與
采女 祠胸方神 香賜既至壇所姦其
采女 天皇聞之曰 祠神祈禱 可不慎
歟 乃遣難波日鷹吉士將誅之 上
479-481

雄略 九年 三月 乃勅紀小弓宿禰
蘇我韓子宿禰 大伴談連 小鹿火宿
禰等曰 新羅自居西土...朝聘無違...
逮乎朕之王天下 投身對馬之外 竄
跡匪羅之表 阻高麗之貢 吞百濟之
城 況復朝聘既闕 貢職莫脩 狼子野
心 飽飛 飢附...宜以王師薄伐 天罰
龔行 於是 紀小弓宿禰 使大伴室屋
大連...曰...臣婦命過之際 莫能視養
臣者...天皇聞悲類歎 以吉備上道采
女大海 賜於紀小弓宿禰 爲隨身視
養...等 卽入新羅...知盡得啜地 ...
大伴談連及...皆力聞而死... 紀小弓
宿禰 值病而薨 夏五月 紀大磐宿禰
聞父既薨 乃向新羅 執小鹿火宿禰
掌兵馬... 於是 小鹿火宿禰 深怨乎
大磐宿禰 乃詐告於韓子宿禰曰 大
磐宿禰 謂僕曰 我當復執韓子宿禰
所掌之官不久也...由是...有隙 於是
百濟王 聞日本諸將 緣小事有隙 乃
使人於韓子宿禰等曰 欲觀國塚 請
垂降臨 是以 韓子宿禰等 並轡而往
及至於河 大磐宿禰...射墮韓子宿禰
...行亂於道 不及百濟王宮而却還矣
於是 采女大海 從小弓宿禰喪 到來
日本...作家墓於田身輪邑 而葬之也
由是大海欣悅...六口送大連 吉備上
道蚊嶋田邑家人部是也... 小鹿火宿
禰...請 留住角國... 是角臣等 初居
角國 而名角臣 自此始也 上481-
485

전해 듣고, “신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하게 행동을 해야하는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라며, 카타후를 죽여 버렸다.

465년 3월, 하쓰세 왕은 “예전에는 신라 사람들이 이곳 사람[일본열도에 도래한 가야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야마토 왕국을 수립하고] 이곳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逮乎朕之王天下) 쓰시마 근처에도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저지하고, 백제 성읍 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우리에게 사절이나 공물도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승냥이 같은 야심을 품고 있으니, 내 자신이 직접 신라를 정벌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으나, 우선 (키 씨족의) 오유미, (소가 씨족의) 카라코(蘇我 韓子), (오호토모 씨족의 무라지) 카타리, 오카히 등 네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하여 보내니, 신라를 응징토록 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총 대장인 오유미 가, (오호토모 씨족의) 무로야 대련을 통해, 자기 부인이 얼마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따라 다니며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전했다. 왕은 이를 측은히 여겨, 우네메(시녀) 오호시아마 를 보내주어 오유미를 모시게 했다.

오유미 일행은 신라를 공격하러 떠났다. 하지만 전투는 힘들었다. 먼저 카타리가 록 땅에서 전사했고, 오유미는 병사했다. 그 해 5월, 키 씨족의 오히하는 부친이 병사했다는 말을 듣고, 신라로 건너가서 오카히의 군사를 접수했다. 자신 휘하의 군사를 (오유미의 아들 오히하 에게) 빼앗긴 오카히는 원한을 품고, 소가 씨족의 카라코 에게, 오히하가 카라코 휘하의 병사들마저 장악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오히하와 카라코의 사이가 소원해졌다.

백제왕은, 이같이 사소한 일들로 야마토 장수들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들에게 사람을 보내, 국경지역의 일들을 좀 알아보고 싶으니 모두들 백제 왕성으로 와 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오히하 와 카라코는 백제 왕성을 향해 출발했으나, 어느 강가에 이르러 오히하는 (소가 씨족의) 카라코를 활로 쏘아 죽여 버리고, 중도에서 돌

아와 버렸다.

앞서, 병사한 오유미의 시신을 가지고 귀국한 공녀 오호시아마는, 왕의 배려로 타무와 마을에 묘를 만들어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녀는 왕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크게 기뻐, 카라 야츠코무로(韓奴室) 등 6인을 (오호토모 씨족의) 무로야 대련에게 보냈다. (카미쓰미치 씨족의) 야케히토(家人)베는 이 “6명”의 사람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시시히토(肉人) 베는 처음에 “3명”을 가지고 시작 했다 하더니, 이번에 야케히토 베는 “6명”을 가지고 만들었다 한다. 백제의 부 제도를 본받았다는 야마토 왕국의 베 제도는, 훨씬 임기응변적이고,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실용적 형태로 변형이 된 것 같다.

한편, 오카히는 귀국 후, 쓰노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했다. 왕의 허락을 받아 그곳에 처음으로 거주하면서, 쓰노 오미 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4) 말(馬) 과 호무다

465년 가을, 카후치 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보고되었다. 아스카베 고을에 사는 하쿠손 이라는 사람은, 시집간 딸이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 주려고 사위의 집으로 갔었다.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달밤에 이치비코 언덕에 있는 호무다 왕릉 아래를 지나치는 순간, 붉은 준마를 타고 들새보다도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과 마주쳤다. 하쿠손은 경탄의 눈으로, 홀린 듯이 쳐다보았다. 그 붉은 준마를 타고 가던 사람은, 하쿠손이 자기가 탄 말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되돌아 와서 서로 말을 교환 할 것을 제안했다. 하쿠손은 즐거이 말을 바꾸어 타고 집으로 돌아와, 마구간에 말을 매어놓고 먹이를 준 다음,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그 준마는 흙으로 빛은 하니마(土馬)로 변해 있었다.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해서, 전날 밤에 말을 교환했던 호무다 능 아래로 가보니, 원래의 자기 말이 “왕릉의 하니마” 들 사이에 서있

雄略 九年 七月 河內國言 飛鳥戶
郡人田邊史伯孫女者 古市郡人書首
加龍之妻也 伯孫聞女產兒 往賀婿
家 而月夜還 於蓬萊丘譽田陵下 蓬
萊 此云伊致寐姑 逢騎赤駿者 其馬
時獲略 而龍翥...伯孫就視 而心欲
之... 其乘駿者 知伯孫所欲 仍停換
馬 相辭取別... 驟而入廐 解鞍秣馬
眠之 其明旦 赤駿變爲土馬 伯孫心
異之 還覓譽田陵 乃見驄馬 在於土
馬之間 取代而置所換土馬也 上485

新撰姓氏錄 右京諸蕃下 百濟 飛鳥
戶造 出自百濟國比有王也 新302

는 것을 발견했다. 하쿠손은 하니마로 변한 붉은 준마를 호무다의 능에 가져다 놓고, 자신의 말을 다시 타고 돌아왔다. 믿기 힘든 얘기가 보고 된 것이다.

아마 이 얘기는, 호무다 때에 말이란 존재가 최초로 일본 땅에 도입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언덕위의 왕릉 주변에 흙으로 빚은 말들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신찬 성씨록에 의하면 아스카베 씨족은 백제 20대 비유왕(427-455년)의 후예라 한다.

(5) 새를 기르는 베

466년, 무사의 스구리(村主) 등은 중국 남조에서 얻어 온 두 마리의 기러기를 가지고 쓰쿠시에 도착했다. 한데 미누마 키미의 개가, 이 기러기들을 물어 죽였다. 미누마는 겁이 나서, 들 기러기 10마리를 새 기르는 사람들과 함께 헌상을 하고, 속죄해 주기를 빌었다. 왕은 그를 용서해주고, 이 새 기르는 사람들을 카루 마을과 이하레 마을에 정착시켰다.

467년 겨울, 새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키우고 있던 새 한 마리를, 우다 사람의 개가 물어 죽였다. 하쓰세는 크게 노해 쇠를 불에 달구어 그 개 주인의 얼굴에 낙인을 찍고, 새 기르는 베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궁궐에서 야근을 하던 시나노 일꾼(直丁)과 무사시 일꾼들이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고장에서는 새를 작은 묘만큼 쌓아 놓고 밤낮으로 잡아먹어도 남는데, 아니 그래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 얼굴에 낙인을 찍다니, 왕은 아주 무도하고 악한 사람이다.” 왕은 이 말을 엿 듣고, 그들에게 당장 새를 묘만큼 쌓아 놓아 보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못하자, 모두 새 기르는 베에 귀속시켜 버렸다.

468년 여름, 무사의 스구리 등이 중국 남조에 사신으로 떠났다. 그 해 가을, 왕은 목공 하나를 시켜 누각을 만들게 했다. 그 목수는, 높은 누각 위에 올라, 사면을 나르는 듯 뛰어다녔다. 그때 이세 출신의 궁녀 하나가, 누각 위를 쳐다 보다 자빠져서, 임금님이 드실 음식을 엮어버렸다.

雄略 十年 秋九月 身狹村主青等將吳所獻二鵝 到於筑紫 是鵝爲水間君犬所嚙死 由是 水間君恐怖憂愁 ... 獻鴻十隻與養鳥人 請以贖罪 天皇許焉 冬十月 以水間君所獻養鳥人等 安置於輕村 磐余村 二所上487

雄略 十一年 冬十月 鳥官之禽 爲菟田人狗所嚙死 天皇瞋 黥面而爲鳥養部 於是 信濃國直丁與武藏國直丁侍宿 相謂曰 嗟乎 我國積鳥之高 同於小墓 旦暮而食 尚有其餘 今天皇由一鳥之故 而黥人面 太無道理 惡行之主也 天皇聞而使聚積之 直丁等 不能忽備 仍認爲鳥養部上487

왕은 그 목수가 공녀를 범한 것으로 오해하고, 모노노베에 회부해 처형하려고 했다. 그때 왕의 시중을 들고 있던 하타 씨족의 사케키미(酒公)가, 가야금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다. 왕은 처형을 취소했다. <주 10-1>

(6) 하타 씨족의 조세징수 임무

하쓰세 치세 때까지만 해도, 하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미 혹은 무라지 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하타 사람들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하타 미야츠코(秦造)는 하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471년에, 하타 미야츠코인 사케(酒)가 문제의 심각성을 왕한테 고했다.

하쓰세 왕은 (하타의 미야츠코인) 사케를 총애했기 때문에, 전국의 하타 사람들을 모두 한데 모아 사케 키미(公)에게 넘겨주도록 했다. 그러자, 사케는 180종류의 기능직 사람들(勝)을 지휘하여, 조세로 받아들인 고급 비단을 대궐 마당 가득히 쌓아 놓았다. 왕은 그에게 우쓰마사 라는 카바네(姓)를 내려주었다.

472년 7월, 하쓰세는 뽕나무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지역에는 뽕나무를 심도록 명령했다. 왕은 또 다시 하타 사람들을 분산 이주시켜서 전국적으로 조세를 받아들이게 했다. 같은 해 10월, 왕은 아야 베들을 한데 모아, 반조가 될 사람을 정하고, 아야 씨족의 수장인 오미(使主)에게 아타히 라는 직위를 내려주었다.

일찍이 시조 호무다 치세 때, 하타 미야츠코의 조상인 궁월군이, 백제의 120개 현 사람들을 데리고 도래했었고, 또 야마토 아야 아타헤의 조상인 아치 오미가 백제로부터 17현 사람들을 인솔하고 도래했던 것이다.

위서 열전에 의하면, 백제 개로왕은 472년에 위나라로 사신을 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를 올렸다: “신들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선대에는 옛

<주10-1>

470년 정월, 무사의 스구리 등은 중국 남조의 사신과 함께, 아야 하토리(漢織), 쿠레 하토리(吳織), 키누누히(衣縫)의 에히메 와 오토히메 등, 직물과 의복을 만드는 숙련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 이 기술자들은 히노쿠마에 정착 시켜졌다. 에히메는 오호미와 신을 모시게 했고, 오토히메는 아야 키누누히 베로 만들었다. 아야 하토리 와 쿠레 하토리의 키누누히는 각각 아스카 키누누히 베와 이세 키누누히의 선조가 된다. 왕은 네노 오미 라는 자를 의심해 죽여 버리고, 그 자손들을 양분하여, 한 무리는 오호쿠사카베의 미타미(郡民)로 만들어 왕후에게 주고, 다른 한 무리는 치누의 현주에게 하사해서 집꾼을 만들었다.

雄略 十二年 夏四月 身狹村主青與...出使于吳 冬十月 天皇命木工闢鷄御田 始起樓閣 於是 御田登樓疾走四面 有若飛行 時有伊勢采女仰觀樓上...覆所擊饌 天皇便疑御田姦其采女 自念將刑 而付物部 時秦酒公侍坐 欲以琴聲 使悟於天皇 ... 於是 天皇悟琴聲 而赦其罪 上489

雄略 十四年 春正月 身狹村主青等共吳國使 將吳所獻手末才伎 漢織吳織及衣縫兄媛 弟媛等 泊於住吉津...即安置吳人於檜隈野 因名吳原以衣縫兄媛 奉大三輪神 以弟媛爲漢衣縫部也 漢織 吳織衣縫 是飛鳥衣縫部 伊勢衣縫之先也...疑於根使主... 遂爲官軍見殺 天皇命有司 二分子孫 一分爲大草香部民 以封皇

后 一分賜茅渟縣主 爲負囊者 上
493

雄略 十五年 秦民分散臣連等 各隨
欲駈使 勿委秦造 由是 秦造酒甚以
爲憂 而仕於天皇 天皇愛寵之 詔聚
秦民 賜於秦酒公 公仍領率百八十
種勝 奉獻庸調絹縑 充積朝廷 因賜
姓曰禹豆麻佐 一云 禹豆母利麻佐
皆盈積之貌也 上495

雄略 十六年 秋七月 詔 宜桑國縣
殖桑 又散遷秦民 使獻庸調 冬十月
詔 聚漢部 定其伴造者 賜姓曰直
一云 賜 漢使主等賜姓曰直也 上
495

魏書卷一百 列傳第八十八 百濟國
延興二年 其王餘慶始遣使上表曰
臣建國東極 豺狼隔路 ... 莫由奉
藩 ... 謹遣私署冠軍將軍 駙馬都尉
弗斯侯 長史餘禮 龍驤將軍 帶方太
守 司馬張茂等 投舫波阻 搜徑玄
津 ... 又云 臣與高句麗源出夫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其祖釗輕廢隣
好 親率士衆 陵踐臣境 臣祖須 ...
泉斬釗首 自爾已來 莫敢南顧 自馮
氏數終 餘燼奔竄 醜類漸盛 遂見陵
逼 構怨連禍 三十餘載 財殫力
竭 ... 遠遣一將救臣國

雄略 十七年 詔土師連等 使進應盛
朝夕御膳清器者 於是 土師連祖吾
筭 乃進攝津國來狹狹村 山背國內
村 俯見村 伊勢國藤形村及丹波 但
馬 因播私民部 名曰贊土師部 上
495

雄略 十八年 遣物部菟代宿禰 物部
目連 以伐伊勢朝日郎 朝日郎... 其

정의를 돈독히 하며 지냈었는데, 장수왕의 조부(고국원왕)가 경솔히 이웃 간의 우호를 깨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침략하므로, 신의 조부 수(근구수왕)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그의 목을 베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고구려가) 감히 남쪽을 쳐다보지 못하였는데, (북연의 임금) 풍씨가 궁하게 된 무렵부터는 ... 이 더러운 무리(고구려)가 차츰 번성하여 ... 우리 백제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30여 년을 지속하니, 나라의 재정과 힘이 소진되어 자연 쇠약해졌습니다. 부디 장수를 보내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473년, 하지(土師) 씨족의 무라지 등에게 왕의 아침 저녁 수라상에 사용할 (하지키) 그릇들을 만들도록 했다. 하지 씨족의 조상인 아케는 (세뜨 땅의 쿠사사 마을, 야마시로의 우치 마을, 후시미 마을, 이세의 후지카다 마을, 그리고 타니하, 타지마, 이나바 등의) 자기 개인 사유민인 카키베(民部)를 모아 가지고, 니헤 하지 베라고 이름을 지었다.

474년, 왕은 모노노베 씨족의 우시로 스키투네(宿禰)와 메 무라지를 파견하여, 이세의 아사케 라는 자를 토벌토록 했다. 그런데, 아사케가 쏘는 화살은 이중의 갑옷도 뚫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시로는 싸움에 임해서 아주 비겁했다. 반면, 메는 용감하게 싸워 마침내 아사케를 잡아 죽여 버렸다. 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우시로 소유의 이츠키카히 베를 빼앗아 메에게 주었다.

(7) 목협만치(木脇滿致)

삼국사기를 본다. 475년 가을 9월, 고구려 왕 거련(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의 왕도 한성을 포위하니, 개로왕은 성문을 걸어 닫고 감히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개로왕은 아들 문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은 쇠잔하고 군사는 약하니, 이런 위기에 처해서도 누구 하나 나를 위하여 힘껏 싸워줄 사람이 없는 것 같

다. 나는 마땅히 사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너마저 여기에 있어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니, 난을 피하였다가 나라의 계통을 잇도록 하라” 하였다. 문주는 드디어 목협만치(木荔滿致), 조미걸취 와 더불어 남쪽으로 떠났다.

이 기록을 보면, 앞서 오오진 조에서 나오는 (목라근자의 아들이라는) 목만치(木滿致), 혹은 이자호 조에서 나오는 소가마치(蘇我滿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목협만치가 등장한다.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기(百濟記)를 본다: “개로왕을묘년(475년) 겨울, 고구려의 대군이 몰려와서, 대성(大城)을 7일 동안 밤낮으로 공격하니, 왕성(王城)이 마침내 함락되었고(降陷), 드디어 위례마저 잃게 되니(遂失尉禮), 국왕, 왕후, 왕자 등 모두가 적의 수중에 잡혔다.”

일본서기는 계속한다. 소수의 백제군 패잔병들이 창하에 모였으나, 양식은 소진되었고, 모두들 비통하여 울고 있을 뿐이었다. 이때 고구려 장수들은 장수왕에게 “이 백제 사람들의 기질은 아주 비상 한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이런 지경에 빠질 때마다 도대체 자기들이 구제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버려두면 또 다시 소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완전히 소멸 시켜 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그러자 장수왕은, “불가하오, 내가 듣기에 백제는 오래 전부터 야마토 조정의 관가(官家)이고, [백제 왕손들이 야마토 왜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라고 대답했다.

477년, 하쓰세는 백제 수도 한성이 고구려 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세자 문주에게 코무나리 땅에 새로 도읍을 정해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을 권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백제가 거의 다 망했는데, 야마토 왕에 의지해서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말했다.

일본서기는 이 대목에서, 니혼쿠기(日本舊記)를 인용한다: “구마나리를 말다 왕에게 주었다고 말했는데, 아마 이는 잘못 일 것이다. 구마나리란 미마나의 하치호리 현의 별

所發箭 穿二重甲 ... 菟代宿禰怯也 ... 而物部目連 率 ... 獲斬朝日郎矣 天皇聞之怒 輒菟代宿禰所有 猪使部 賜物部目連 上495-497

第三 長壽王喜將伐之 乃授兵於帥臣 近蓋婁聞之 謂子文周曰 矛愚而不明 信用姦人之言 以至於此 民殘而兵弱 雖有危事 誰肯爲我力戰 吾當死於社稷 汝在此俱死無益也 蓋避難以續國系焉 文周乃與木荔滿致 祖彌築取 南行焉 三49

雄略 二十年 冬 高麗王大發軍兵 伐盡百濟 爰有小許遺衆 聚居倉下 兵糧既盡 憂泣茲深 於是 高麗諸將言於王曰 百濟心許非常 臣每見之不覺自失 恐更蔓生 請逐除之 王曰 不可矣 寡人聞 百濟國者爲日本之官家 所由來遠久矣 又其王入仕天皇 四隣之所共識也 遂止之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冬 狛大軍來攻大城 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 國王及太后 王子等 皆沒敵手 上497

雄略 二十一年 春三月 天皇聞百濟爲高麗所破 以久麻那利賜汶洲王 救興其國 時人皆云 百濟國 雖屬旣亡 聚憂倉下 實賴於天皇 更造其國 汶洲王蓋鹵王母弟也 日本舊記云 以久麻那利 賜末多王 蓋是誤也 久麻那利者 任那國下哆呼喇縣之別邑也 上497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文周王 或作 汶洲 蓋鹵王之 子也 初毗有王薨 蓋鹵嗣位 文周輔 之 位至上佐平 蓋鹵在位二十一年 高句麗來侵圍漢城 蓋鹵嬰城自固 使文周求救於新羅 得兵一萬迴 麗 兵雖退 城破王死 遂卽位 性柔不斷 而亦愛民 百姓愛之 冬十月 移都於 熊津 二年 春三月 遣使朝宋 高句 麗塞路 不達以還 夏四月 耽羅國獻 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秋九月 拜解仇爲兵官佐平 三年 春二月 重 修宮室 夏四月 拜王弟昆支爲內臣 佐平 封長子三斤爲太子 秋七月 內 臣佐平昆支卒 秋八月 兵官佐平解 仇 擅權亂法 有無君之心 王不能制 九月 王出獵宿於外 解仇使盜害之 遂薨 三59-60

三國史記 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慈悲麻立干 十九年 夏六月 倭人侵 東邊 王命將軍德智擊敗之 殺虜二 百餘人 二十年 夏五月 倭人舉兵 五道來侵 竟無功而還 三上64

읍 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는 웅진(熊津)이 “고마ㄴ ㄹ” 로 나타나는데, 고마는 옛 백제 말로 곶을 뜻하고, 현대 일본말의 쿠마에 해당한다. (이기문, 1972: 37) “ㄴㄹ”은 우리 고어로 나루(津)를 뜻한다.

삼국사기를 본다. 백제 22대 문주왕은 개로왕의 아 들이다. 455년에 비유왕이 돌아가고 개로가 왕위를 잇자, 문 주가 부친을 보좌하여 상좌평의 직위에 이르렀다. 475년에 고구려가 침범해 와서 한성을 포위하므로, 개로왕이 성을 굳 게 지키고 문주로 하여금 신라에 구원을 청하게 하니, 군사 1만 명을 얻어서 돌아왔다. 고구려 군사가 비록 물러갔으나, 성은 무너지고 왕은 이미 서거했으므로 그는 왕위를 계승했 다.

문주왕은 성품이 유순하여 매사에 쉽사리 결단을 내 리지 못하였으나,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백성도 문주왕을 사랑하였다. 겨울 10월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웅진은 곶나루 혹은 코무나리 라고 불렀었고, 오늘날에는 공주라 부 른다.

476년 3월에 백제 문주왕은 사신을 송나라로 보내 어 조공을 하려 하였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되 돌아왔다. 여름 4월에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치니, 왕은 기 뻘서 공물을 가지고온 사자를 은술로 삼았다. 가을 8월에 해 구를 병관 좌평으로 삼았다.

477년 봄 2월에 궁실을 중수하였다. 여름 4월에 문 주왕은 [야마토 조정에 나가있는] 곤지를 불러들여 내신좌평 으로 삼고, 장자 삼근을 태자로 봉하였다. 7월에 곤지가 죽었 다. 8월, 병관좌평 해구가 권력을 남용하여 법도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문주왕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왕은 이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9월에 문주왕이 사냥을 나가 야외에서 목 게 되자, 해구는 도적을 사주하여 왕을 해치게 했다. 477년 말, 왕이 돌아가자 삼근이 왕위를 계승했다. 여기까지가 삼국 사기 백제본기의 기록들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본다. 476년 6월,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므로 왕이 덕지에게 왜병을 격퇴하라고 명했 다. 왜인들이 패하여 달아났는데, 그 와중에 200여명의 왜인

들이 죽거나 사로 잡혔다. 477년 5월, 왜인이 군사를 일으켜 다섯 갈래 길로 침범했으나 별 소득이 없이 물러갔다. 이제 일본서기로 되돌아간다.

478년, 하쓰세는 시라가 왕자를 태자로 삼았다.

(8) 사지절 도독 육국 제군사 왜왕

송서는 왜왕 부가, 서기 478년 순제 때, 유송 조정에 올린 표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글은 그 당시의 정황을 말해주는 아주 흥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가 봉해 받은 나라는 아주 머나먼 곳, 바다 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 저의 할아버지 [호무다]는, 몸소 갑옷을 입고, 잠시를 쉬지도 않으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동쪽으로는 모인 (아이누) 55개국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남 큐우슈우의 쿠마소를 포함한] 66개국의 오랑캐 무리들을 복속 시키고, 바다 건너 북쪽으로는 [호무다가 일본으로 건너올 때 지나오게 된 가야지역과, 백제 근초고왕이 정복하는 것을 도와준 옛 마한지역의] 95개국을 평정 했습니다. . . . 나라의 왕도는 자리가 잡히고 ... 대대로 빠짐없이 우리 선조들은 [중국] 조정에 문안을 드리었습니다. . . . 백제를 거쳐서(道遙百濟) 그곳에 가기 위해서, 비록 먼 길이지만, 우리는 선박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오나 고구려는 무도하게 그 배들을 탈취하려 했고, [백제의] 변경을 침략하며, 사람들을 거둬서 살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매번 지체하게 되고 순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 . . 혹은 [중국] 조정에 도달하기도 하고, 혹은 도착을 못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죽은 아버지는 (송나라) 조정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도적을 보고 분개하여, 정의감에 우러나 백만의 사수를 모아 크게 거사를 하려 했는데, 때마침 저의 부친 뿐 아니라 형[아나호]까지 죽었기 때문에(奄喪父兄), 마지막 단계에서 그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 . .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금 무기를 정돈해서, 제 부친과 형님이 의도한 바를 [父兄之志, 즉 고구려의 계속 되는 침략으로 고통을 받는 백제의 원수를 갚는 사업을] 실행 하려 합니다. . . . 그러므로 저를

雄略 二十二年 春正月 以白髮皇子
爲皇太子 上497

宋書 卷九十七 列傳 夷蠻 順帝 昇
明 二年 遣使上表曰 封國偏遠 作
藩于外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
川 不遑寧處 東征毛人 五十五國
西服衆夷 六十六國 渡平海北 九十
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于歲 臣雖下愚 忝胤先緒 驅率
所統 歸崇天極 道遙百濟 裝治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吞 掠抄邊隸 度
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曰進
路 或通或不 臣亡考濟 實忿寇讐
壅塞天路 控弦百萬 義聲感激 方欲
大舉 奄喪父兄 使垂成之功不獲一
篲 居在諒闇 不動兵甲 是以偃息未
捷 至今欲練甲治兵 申父兄之志 義
士虎賁 文武効功 白刃交前 亦所不
顧 若以帝德覆載 摧此彊敵 克靖方
難 無替前功 竊自假開府儀同三司
其餘咸假授 以勸忠節 詔除武 使持
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이 작전의 최고 지휘자로 임명해 주시고, 제 부하들 또한 충절을 권장토록, 직위와 칭호들을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해서, 왜왕 부는 서기 478년에 “사지절 도독 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왕” 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송서에 나타나는 “6국제군사” 혹은 “7국제군사”라는 표현에서 가장 흥미 있는 점은, “왜(야마토)” “신라” 혹은 “백제” 라는 국가 명칭들과 동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한” 과 “진한” 이라는 명칭들이다. (“변한” 과 “고구려” 는 나타나지 않는다.)

5세기에는, 중국 사서들에서도 마한과 진한이 이미 별개의 독립된 정치적 존재로 기록되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478년 당시, 마한을 구성했던 성읍국가들은 이미 백제에 대부분 흡수되었었고, 진한을 구성했던 성읍국가들은 대부분 신라에 흡수되었었다. 야마토 지배자들은, 당시에 가야연맹을 구성하고 있던 국가들 중, (백제에 흡수되지 않은) 옛 마한의 잔존 국가들은 그냥 마한이라 부르고, (신라에 흡수되지 않은) 옛 진한 잔존 국가들은 그냥 진한이라 부르고, 단지 옛 변한 잔존 국가들만은 “임나와 가라” 로 크게 양분해서 두개의 독립된 명칭을 부여했던 것 같다.

송서의 기록에서는, “임나와 가라” 가 야마토(倭)나 신라와 동급으로 6국 혹은 7국의 국가명칭을 구성하고 있다. (광개토왕 비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 사학자들은 이점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6국이건 7국이건 무관심했고, 칭호를 수여할 때 단지, 왜의 통치자가 제출한 6개 혹은 7개의 국가명단에서,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백제 이름만을 분명하게 삭제 시켜 버린 것이다.

신라는 서기 565년까지 중국 왕조들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통치자들은 신라라는 존재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북제의 무성 황제가, 565년에 이르러, 비로소 신라 진흥왕(540-576년)에게 사지절 동이교위 낙랑군공 신라왕이라는 관작을 주

었다. 당시 진흥왕은 한강유역에서 백제를 몰아내고, 남양만에 당항성(黨項城)을 쌓아, 서해를 거쳐 직접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관문을 확보하였다. 낙랑군공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9) 곤지의 아들 동성왕

삼국사기를 본다. 삼근왕은 문주왕의 장자이다. 477년에 왕이 돌아가자, 13세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했다. 해구가 문주왕을 시해한 것이 분명한데도, 왕위를 계승한 그 아들은 해구를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구에게 군사와 일반 정사 일체를 위임하였다. 478년, 해구가 드디어 무리를 모아 대두성에 근거를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좌평 진남에게 군사 2천명을 주어 해구를 토벌케 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다시 덕술 진로에게 정병 5백 명을 주어 토벌케 하니, 드디어 해구를 추격해서 잡아 죽여 버렸다. 479년에 삼근(三斤)왕 역시 서거했다. 백제 땅에서는 아직도 진씨 일족이 왕실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 479년 조는, 백제의 문근(文斤)왕이 서거했다고 기록을 했다. 삼국사기의 백제 삼근왕 서거 년도와 일치한다. 천왕(天王)이라는 호칭으로 일본서기에 기록된 하쓰세는, 곤지의 다섯 왕자 중 두 번째인, 말다 왕자를 불러 친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백제로 돌아가 왕위를 계승하라 말하고, 쓰쿠시 군사 5백인을 함께 보내 호송케 하니, 그가 동성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곤지의 도래 년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말다 왕자는 17세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해, 쓰쿠시의 아치 오미, 우마카히 오미 등이 해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다.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압박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임금님의 표현을 왕이라고 하다가, 지금같이 “천왕”이라고 부르다가, 후에 아주 거창하게 천황이라고 부르게 되는 변화과정을 볼 수 있다.

곤지는 일찍이 461년에 형님 개로왕(455-475년)의 명을 받고 야마토 조정에 건너와 있다가, 우유부단하고 무능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三斤王 文周王之長子 王薨 繼位 年十三歲 軍國政事一切委於 佐平解仇 二年 春 佐平解仇與思率 燕信聚衆 據大豆城叛 王命佐平眞 男 以兵二千討之 不克 更命德率眞 老 帥精兵五百 擊殺解仇 三60

雄略 二十三年 夏四月 百濟文斤王 薨 天王 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 王 幼年聰明 勅喚內裏 親撫頭面 誠勅慇懃 使王其國 仍賜兵器 并遣 筑紫國軍士五百人 衛送於國 是爲 東城王 是歲... 筑紫安致臣 馬飼臣 等 率船師以擊高麗 ... 上499-501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文周王弟昆支之子 膽 力過人 善射百發百中 三下60

한 개로의 아들 문주왕(475-477년)을 도와주려고, 병약한 몸을 이끌고 477년 2월에 귀국을 해서 내신좌평이 되었다. 하지만 곧지는 귀국한지 5개월 만에 병사하고, 조카인 문주왕 마저 두 달 후인 9월에 해구 손에 살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왕위를 계승한 문주왕의 맏아들 삼근왕(477-479년)도 2년 만에 요절을 하니, 야마토의 하쓰세 왕은 백제 왕실의 운명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479년 4월. 백제의 왕위 계승을 위해 곧지의 둘째 아들 말다를 떠나보내는 하쓰세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말다 왕자는 어린 나이였기는 했지만, 무척 총명했었다. 이 말다가 바로 동성왕인 것이다. 삼국사기는, 동성왕(479-501년)이 담력이 크고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라 했다.

(10) 하쓰세의 서거

백제의 삼근왕이 죽고, 곧지의 둘째 아들 말다를 떠나보낸 지 4개월 후인 479년 여름 8월에 하쓰세 역시, (오호토모 씨족의) 무로야 대련과 야마토 아야(東漢) 쓰카 아타히 두 사람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운명했다.

하쓰세는 “대련 등은 (사유민인) 카키베(民部)가 광대하기 때문에 서로 돕도록 노력해야한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의 집안이나 마찬가지로. (중앙의) 오미, 무라지, 반조 등은 매일 미카도에 참여(朝參)하고, (지방의) 국사, 군사 등은 정한 시기에 조정에 모여, 백성들을 위해 정사를 돌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야마토 왕국의 양대 씨족을 구성하고 있던 야마토 아야 씨족의 아타히가 상당히 많은 수의 사유민을 카키베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쓰세는, 478년 봄에 태자로 만든 시라가 왕자가 어쩐지 무능하게만 보여, 야마토 왕국의 장래를 크게 우려하면서 서거한 것이다. 왕릉은 카후치의 타지히에 있다. 에미시의 반란이 있었으나 즉시 진압되었다. 이것으로 제1부를 끝

雄略 二十三年 八月 天皇 ... 崩于大殿 遣詔於大伴室屋大連與東漢掬直曰 方今區宇一家 ... 蓋爲百姓故也 臣連伴造 每日朝參 國司郡司 隋時朝集 ... 大連等 民部廣大 充盈於國 ... 是時 征新羅將軍吉備臣尾代 行至吉備國過家 後所率五百蝦夷等 聞天皇崩 乃相謂之曰 領制吾國天皇既崩 時不可失也 乃相聚 結 侵寇傍郡 於是 尾代從家來 會蝦夷於娑婆水門 合戰而射 蝦夷等 ... 驪無逼殺之上499-501

御陵在河內之多治比高鷲也 古322

마친다.

시호 유락쿠(雄略)인 하쓰세의 재위기간을 전환점으로, 그 동안 일본서기에서 길게는 120년까지 벌어졌던 연도상의 괴리도 거의 사라졌다. 또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추정하기 위해, 크게 가정을 세우거나, 크게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야마토의 왕들을, 현대 일반 독자에게도 그리 생소하지 않은, 중국식 시호(漢風諡號)로만 부르기로 한다.

하쓰세의 뒤를 이은 세이네이-켄조오-닌켄(480-498년)등 세 명의 왕들은 좀 멀기는 하지만 모두 형제 사이였다. 7대왕 하쓰세(463-479년) 이후 12대왕 케이타이(507-531년)가 등장할 때까지, 세이네이-켄조오-닌켄-부레츠 등 네 명 왕들의 재위 기간인 28년 동안, 야마토 왕국은 혼란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제 제2부로 넘어간다.

Chapter 11 begins at 299.